

# 성산 광치기 해변 가로등 '논란'

### 도, 녹지공간 조성사업하며 8m 가로등 설치 마을회 "경관 저해... 4m로 높이 줄여야" 반발

제주도가 서귀포시 성산을 성산일출봉 인근 광치기 해변 일대에서 '성산 일출봉 주변 녹지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 과정에서 설치된 8m 높이의 가로등을 두고 성산리마을회가 경관저해라며 개선 방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도가 성산 광치기 해변 녹지공간조성사업을 벌이며 주차장 주변에 설치한 8m 높이 가로등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태윤기자

31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세계유산 본부는 예산 53억 원을 투입해 성산 일출봉 인근 광치기해변 일대 12만 4750㎡에 주차장, 산책로,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성산일출봉 주변 녹지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해당 사업은 80% 가량 진행이 완료됐으며, 광치기 해변 일대에 주차장 부지에는 8m 높이의 가로등 24개가 설치·완료된 상태다.

일대에 주차장 등 녹지공간이 조성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현재 광치기 해변 일대에 설치된 8m 높이의 가로등은 세계자연유산인 성산일출봉의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마을회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임시총회를 거쳐 제주도 측에 가로등 높이를 4m 이하로 줄여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성산리마을회(이장 김석보)는 사업 과정에서 설치된 8m 높이의 가로등이 세계자연유산인 성산일출봉의 주변환경과 어울리지 않고 오히려 경관을 저해하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성산리마을회 측은 "광치기 해변

마을회는 이어 "그러나 제주도는 마을회에서 요청한 개선 요청과 관

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마을회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한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시설 규정에 맞게 가로등을 설치했다는 입장이다. 성산리마을회가 요청한 4m 높이 이하의 가로등 설치 등의 개선 요청은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주차장 조성 관련 조도(밝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마을회 측이 요구하고 있는 4m 높이 이하의 가로등을 설치할 경우 해당 주차장에는 48개의 가로등이 설치돼야 한다"면서 "이는 기존 설치된 8m 높이의 가로등 24개보다 2배가 많은 가로등이 설치돼야 하는 것으로, 오히려 마을회측이 우려하는 경관 저해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현재 해당 주차장 신축 체계 구축 등을 두고 성산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때아닌 돌풍에 파손된 감귤비닐하우스. 지난 30일 오후 6시쯤 서귀포시 남원읍 일부지역에 때아닌 순간최대풍속 15m의 극지성 돌풍이 불어 감귤비닐하우스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 제주 소비자물가 0.3% 상승... 역대 최저

### 통계청 작년 물가동향 분석

2019년 제주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 하락 영향이 컸다.

3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2월 및 연간 제주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2019년 제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보다 0.3% 상승하는데 그쳤다. 이는 호남지방통계청이 1990년 소비자물가 집계를 시

작한 이래 가장 낮다. 이전 최저 기록은 저유가 및 경기 부진 등의 이유로 2015년 0.6%를 기록한 바 있다. 제주도의 경우 올 한해 동안 월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2~0.4%에 머물며 저물가현상이 이어졌다. 전국도 12월 상승률은 6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지만 올 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4%로 1965년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올해 제주 소비자물가지수는 105.76(2015년=100)으로 전년 대비 0.3% 올랐다. 세부적으로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0.3% 상승했고, 신선식품지수는 3.7% 하락하며 상세효과를 냈다. 지난해보다 농산물이 1.1%로 가장 많이 내렸다. 신선식품지수는 2014년 -7.5%를 기록한데 이어 5년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석유류도 전년 대비 4.2% 하락하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저지했다. 품목별로는 오렌지(-38.8%) 마늘(-13.6%) 휘발유(-6.1%) 경유(-3.5%) 도시가스(-6.7%) 취사용LPG(-1.5%) 하락폭이 컸다. 백금탁기자

## "제주개발공사 단체협상 개입한 적 없다"

### 박근수 도환경보전국장 피력

제주도개발공사(JPDC) 총과업 사태에 제주도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해명이 나왔다.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31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JPDC 단체협상 과정에서 제주도의 개입은 없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JPDC 노조가 설립된

이후 지속적으로 협상이 진행된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다"며 "최근 파업 사태가 촉발돼서야 구체적인 내용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JPDC는 단체협상 체결 내용 중 행정안전부 지침을 어기는 항목이 있을 경우 공기업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며 "30일 사장 직무 대행과 교섭

대표가 새롭게 선임된 만큼 조만간 체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JPDC 단체협상에 관여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30일 이경호 JPDC상임이사(기획총괄)가 오경수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기로 결정됐고 협상 실무 대표는 한재호 상임이사(삼다수 공장장)가 선임됐다. 이어 다음날인 31일은 총과업 나흘 만에 노사 단체협상이 진행됐다. 송은범기자

## 2020 신년 특별사면 도내 어민 82명 포함

2020년 신년 특별사면에 제주지역 영세 어업인 82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출·입항 미신고 등을 위반한 생계형 법령위반 어업인 82명에 대해 31일자로 특별사면(처분기

록 삭제)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은 행정처분 기록이 삭제되는 것으로, 어업활동에 제약을 받았던 생계형 어업인 및 승선원들이 다시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특별사면에서는 무허가 조업, 조업금지구역 위반, 공조조업, 유해약품 사용 등 수산자원 보호·육성 및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는 제외됐다. 송은범기자

## 폭행에 음주운전 징역형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창 부장판사는 폭행, 사기,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제주도 한 유흥주점에서 46만원 상당의 술을 먹고 값을 지불하지 않았고 지난 2월 음주운전했다가 기소됐다. 김현석기자

## 도심지 클린하우스 불법투기로 '몸살'

### 연동지역 쓰레기로 범벅 바람불면 주변으로 날려 행정 "CCTV설치 검토중"

제주시내 클린하우스에서 불법 투기가 잇따르고 있어 시민 의식 개선 활동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제주시 인터넷 신문고에는 제주시내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및 하천정비를 요구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A씨는 "클린하우스에 쓰레기 불법 투기와 넘쳐나는 쓰레기 등이 인근 하천으로 떨어져 있다"며 비가림막 등의 시설물 설치와 CCTV를 통한 단속을 촉구했다. A씨가 올린 게시글에는 이같은 내용이 고스란히 담긴 사진도 같이 첨부했다.

31일 해당 클린하우스를 기자가 현장을 찾은 결과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하천에는 바람



불법 쓰레기로 뒤범벅된 클린하우스와 바람에 날려 인근으로 떨어진 쓰레기들.

에 날려간 것으로 보이는 쓰레기들이 바닥을 뒹굴고 있었다.

A씨는 "지난 2017년에도 해당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민원을 제기하자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는 담당

자의 답변을 받았지만 3년 가까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대로"며 "비가림막 등의 시설물 설치와 하천 및 인근 환경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해당 클린하우스는 도로폭이 좁아 비가림 시설물 등의 설치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최근 쓰레기 불법 투기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천으로 떨어진 쓰레기 문제 등은 조만간 인력을 투입해 환경정비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시 지역 클린하우스는 총 1780곳으로 이중 절반가량인 887곳에만 CCTV가 설치돼 있다. 또한 비가림 시설물 등이 설치된 클린하우스는 총 1175곳이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謹賀新年

희망찬 새해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회원 모두는 2020년 경자년 새해에도 제주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공익단체로서 최선을 다해 보내주시는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회장 강지연 대의원회 의장 김경진

수석부회장 김용범 부회장 이권호 고현심 이석재 김원 부의장 김동규 박재남

총무이사 윤진호 법제이사 이태유 학술이사 문이상 감사/중앙이사 이승희  
총무이사 송대성 공보이사 박철민 재무이사 주현이 사무처장 오석호  
의무이사 이정훈 공보이사 정구중 정보통신이사 장순봉 사무처간사 양은심  
의무이사 정유남 정책이사 박형근 정보통신이사 권태연  
보험이사 김창순 정책이사 이영일 특별사업이사 유현욱  
보험이사 한승태 학술이사 이재천 대외협력이사 심재현

제주시 오라남로 45, TEL. 064)757-4640, FAX. 064)757-4590

謹賀新年

새로운 아침,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2020

제주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JDA 제주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  
회장 한재익

부회장 부경돈 부회장 김종림 부회장 김관원  
총무이사 김형찬 재무이사 고혁진 치무이사 윤영진  
법제이사 김보성 공보이사 김도현 보험이사 이민우  
학술이사 홍성일 자재이사 정종원 국제이사 이수미  
대외협력이사 손우경 정보통신이사 정덕용 문화복지이사 도경은  
지역이사 고수현 감 사 오정훈 감 사 장은식